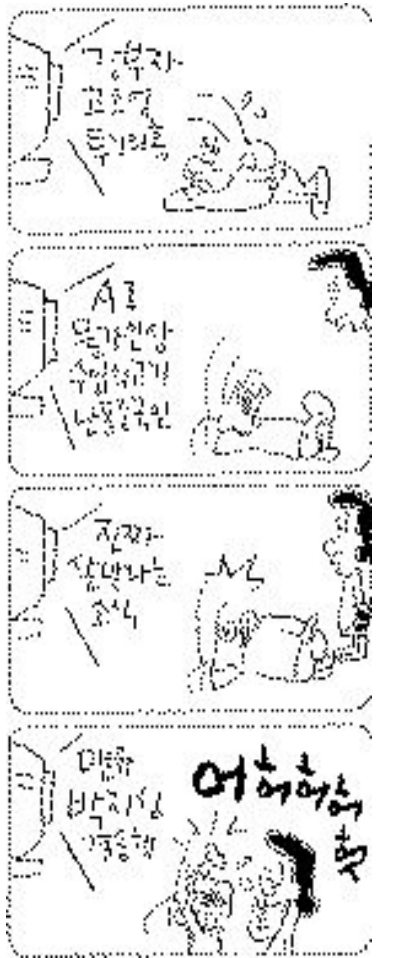




“U대회 유치 우리의 염원 봤죠!”

2일 밤 8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U대회 광주유치 기원시민축제'에서 대학생들이 'UNIVERSIADE GWANGJU 2013' 배너를 흔들며 U대회 유치를 기원하고 있다. /나눔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7497) 김중두



Advertisement for KCC (주) 금복시스템, featuring text like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구사시' and contact information.

“U! 광주” 열정에 “Oh! 광주” 감동

금남로 시민축제 3만명 열기...‘100만인 서명부’ 꽃마차 전달

2013 U대회 광주에서

‘붉은 악마’들의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응원에 버금가는 뜨거운 열기였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실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주시민들은 손에 손을 잡고 ‘FISU! Gwangju!’를 목터져라 외쳤고 실사단은 시민들의 열정과 의지에 감동을 표사했다.

2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U대회 광주유치 기원시민축제’에는 대학생과 시민 등 3만여명이 모였다.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삼삼오오 모여든 시민들은 FISU기와 실사단 줄

등 6명의 실사위원은 박광태 시장의 안내로 레드카펫을 따라 무대 앞까지 100여m를 걸었다.

시민들은 실사단이 자리에 앉는 순간까지 ‘FISU! Gwangju!’를 외쳤고, 실사단은 상기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곧이어 광주시민의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의지를 담은 ‘100만인 서명부’가 꽃마차에 실려 레드카펫을 따라 들어섰다. 조선훈 이진영(24)·박현산(25), 호남대 김재성(25), 광주보건대 최유미(21), 송원대 박요승(24), 전주 예원예술대 박지하(23)씨 등 6명의 학생대표가 꽃마차를 타고 무대 앞으로 다가와 실사위원들에게 각각의 캐리커처와 100만인 서명 기부액자를 전달했다.

액자를 손에 든 버그 단장은 “광주 곳곳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U대회 유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실사단은 이후 R&B 그룹 SG 워너비와 조선훈 학생들의 태권무, 큰 북 공연 등을 관람하며 힐찬 박수를 보냈다. 또 직접 무대에 올라 큰 북을 치며 한국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등 40여분 동안 시민들과 함께 지리한 뒤 오후 9시께 숙소인 신양파크호텔로 이동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재성(25·호남대4)씨는 “U대회 유치신청 도시 중 ‘시민열기’ 만큼은 광주가 가장 뜨거울 것”이라며 “시민축제를 주관한 실사단에게도 이런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제대회 치를 역량 보여줬다”

스테판 버그 실사단장 의미있는 메시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을 이끌고 있는 스테판 버그 실사단장이 특유의 은유법으로 광주 실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실사 총책임자로서 역할을 의식한 듯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했지만 시민환영위원회, 유치 후원회 등이 주최한 각종 오프·온라인 자리에서 인사를 통해 수차례 광주 실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버그 단장은 지난 1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오늘 환영행사에서 수 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준 대회 유치 열망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광주시가 국제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조직화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의 발언은 실사단이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시민 유치 열기 부문에서 일단 광주시가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이어 “실사 기간 동안 시민들과 함께 광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면서 긍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버그 단장의 긍정적인 평가는 실사 이틀째인 2일에도 이어졌다.

그는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후원회장인 박삼구 금곡아시아나그룹 회장 주최로 대회 열린 오찬에서 “광주 지역 학생들이 5·18 당시 민주화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들었다”며 “이 같은 정신은 스포츠 대회 개최지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죽이고 싶다’ 책 낸 전남대교수 정직 3개월 징계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물의를 빚었던 교수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2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은 교수로서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교수는 대학 측의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A교수가 적절하지 않은 처신으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수의 품위를 손상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초 선제성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앞으로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의 14쪽 분량 책을 보내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시킨 선 부장판사와 사법부를 살모했다.

“민주·인권 광주 깊은 감명 받았다”

■실사단 5·18묘지 방문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후보지 현지 실사를 위해 광주에 온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2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와 민주 열정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스테판 버그 스웨덴 집행위원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위원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국립묘지를 방문해 추모관과 묘역 등을 둘러보고 참배를 했다.

이들은 영상물 상영이 끝나고 묘역으로 이동하면서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말롬베트 라레트 위원은 “수십 년간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로 고통을 겪어왔고 5·18민주항쟁과 비슷한 소웨토(Soweto) 항쟁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며 “광주가 2013년 하계U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1980년 광주의 정당성을 세계에 알리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버그 단장은 “당시 광주 대학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기여가 이번 유니버시아드 유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배를 마친 후 이들은 방명록에 “나는 여러분의 투쟁을 존경한다. 영원히 평안하게 잠 드소서”(일본의 히사토 이가라시), “여러분은 젊은이들과 국가의 리더들이다”(터키의 케말 타머), “5·18 민주묘지는 한국의 정의와 인권, 밝은 미래의 상징이다”(세르비아의 시니샤 야스니츠)는 참배 소감을 남겼다.

“광주시·시민 일치 단결 중요” 조언

■공식만한 어떤 대학 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실사단이 광주 방문 첫날 공식 만찬장에서 시민환영위원회·유치위 관계자들과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사단으로서의 광주시 각계 인사들을 통해 대회 유치 열기를 가늠하는 자리였고, 시민환영위원들은 실사단에게 대회 유치를 위해 조언을 구하려는 만찬이었기 때문이다.

시민환영위원회(위원장 전호중 조선훈총장)가 지난 1일 주최한 만찬에는 스테판 버그(스웨덴) 실사단장을 비롯해 말롬베트 라레트(남아공) 등 실사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실사위원들은 모두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 열기에 감동했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지만 대회 유치를 위한 의미 심장한 귀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호중 총장은 “남아공의 말롬베트 라레트 위원이 ‘광주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일치단결해 대회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조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말롬베트 라레트 위원은 또 “시민들이 내 사진은 물론 실사위원 6명의 얼굴사진이 부착된 피켓을 들고 환영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말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회법 광주U대회 유치위원장은 “실사위원들로부터 대회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3개국이 제출한 유치신청서 가운데 광주의 신청서가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나들이 즐기세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맑겠다.

5월 3일
(음 3월 28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15~30
부산	맑음	14~26
대구	맑음	15~24
대전	맑음	13~28
서울	맑음	11~31
인천	맑음	11~28
제주	맑음	10~29
울릉도	맑음	11~31
독도	맑음	11~28
충청	맑음	12~29
강원	맑음	11~31
경북	맑음	11~27
충남	맑음	11~28
전남	맑음	14~30
전북	맑음	11~30
경상	맑음	11~27
제주	맑음	12~21

서해남부
안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남바다=남서~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안바다=남서~서풍 파고 0.5~0.5m
남바다=서~북서풍 파고 0.5~2.5m
목포 밀물 < 00:01 썰물 < 05:33
12:15 썰물 < 17:50
여수 밀물 < 07:22 썰물 < 01:04
19:48 썰물 < 13:26

▲해돋이 05:39 ▲해질 19:20
▲달출 03:47 ▲달짐 16:5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4(일)	5(월)	6(화)	7(수)	8(목)	9(금)
날씨						
최저/최고	16/26	15/25	14/28	14/28	13/25	13/26

오늘 낮 31도...내일은 비

주말인 3일 광주·전남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맑고 더운 날씨가 되겠다. 휴일인 4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

며, 휴일인 4일에는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휴일인 4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

학교 정화구역 내 PC방 영업을 놓고 지역 교육청과 법원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일 김모(여·36)씨가 광주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일 광주시 북구 모 초등학교 학교정화구역 중상대정화구역(학교로부터 200m)에 있는 건물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를 신청했다.

학교 정화구역 내 PC방 영업 엇갈린 해석

동부교육청 “생활지도 문제 있어 불허”
광주지법 “컴퓨터 활용 학습도 중요”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교육청은 “재학생 82명 중 53명(6.4%)이 PC방 앞 도로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어 주변 통학로는 아니지만, PC방에서 영업할 경우 인근 아파트 단지와 주변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정서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으며, 이에 김씨는 행정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PC방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옆 도로

가 주변 통학로로 이용되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비록 PC방의 활성화로 어린 학생들이 학업과 인성함양에 소홀할 우려는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한 학습 및 교류도 청소년 교육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IT강국을 표방하며 관련 교육 및 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실과 김씨가 영업을 하지 못해 일개 빌 불이익은 매우 크다”며 “동부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30대 남성이 잠자리를 거절한 여대생 바텐더(Bartender)의 집을 찾아가 열쇠수리공을 시켜 방문을 따고 내부로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조모(35·광주시 북구)씨는 지난 3월4일 새벽 5시께 동구 금동 A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 김모(여·21)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

○육정을 참지 못한 조씨는 업소 인근에 살던 김씨의 집까지 따라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었고, 김씨한테 출장비용 2만원까지 빼앗겼다고.

수리공 불러 문 따고 여성집 침입

○30대 남성이 잠자리를 거절한 여대생 바텐더(Bartender)의 집을 찾아가 열쇠수리공을 시켜 방문을 따고 내부로 침입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조모(35·광주시 북구)씨는 지난 3월4일 새벽 5시께 동구 금동 A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 김모(여·21)씨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

○육정을 참지 못한 조씨는 업소 인근에 살던 김씨의 집까지 따라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었고, 김씨한테 출장비용 2만원까지 빼앗겼다고.